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이번주 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
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9/21)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48.93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5.9.28 (623호)

말씀묵상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성호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9:45-48
특송	Special Song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성전 정화 사건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0월 5일	10월 12일
최성호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의 의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장면은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첫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였고 두번째 바로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는 장면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눈물은 두 번 모두 죽음과 부활 사건 앞에서 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로 잘 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실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부모의 심정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본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어 잃어 버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보편적인 만인류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이 결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수의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좁은 길을 걸으라고 설교하셨고, 산상설교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 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빛은 결코 어둠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혹 하나님이 이중 인격자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 못된 길을 갈 때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냐 오냐 다 품어주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채찍을 들어 자식을 훈육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생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을 향해 눈물만 흘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과감히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